

언어 네트워크 기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및 매체별 특성 분석*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Media-specific Characteristics Related to Presidential Records based on Semantic Network

정 상 준 (Sang Jun Jung)**
윤 보 현 (Bo-Hyun Yun)***
오 효 정 (Hyo-Jung Oh)****

초 록

본 연구는 언어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언론 보도자료에 나타난 대통령기록물 관련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언론사 5종(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주제어인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하는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시기에 따른 핵심 키워드와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매체의 성향에 따라 인물, 개체, 행위의 세부 키워드를 비교·분석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보도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보도 양태 및 이슈의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매체 성향에 따른 보도 특성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social issues related to presidential records in press release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For this purpose, we 1) selected five major news medias in Korea - Chosun Ilbo, JoongAng Ilbo, Dong-A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Newspaper; 2) collected relevant articles including the subject word "Presidential Records", and 3) analyzed issue trends based on timeline using semantic network. According to medias, the issue related to the presidential records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 specific keywords in terms of persons, entities, actions. At the result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reporting patterns and component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related issues. And the difference of media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news media tendency was derived.

키워드: 대통령기록물, 이슈분석, 신문기사, 언어 네트워크 분석

Presidential Records, Issue Analysis, News Articles, Semantic Network Analysis

-
-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R1A2B1008000, NRF-2017M3C4A7068186).
이 논문은 2018년 제25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장·보완한 것임.
- **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fpxltn07@naver.com) (제1저자)
- *** 목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ybh@mokwon.ac.kr) (공동저자)
-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연구원(ohj@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19년 2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3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3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81-207,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1.181]

1. 서론

사회적 이슈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을 의미한다. 전쟁, 재난, 사고 등과 같이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정책, 사업, 기술, 사회운동 등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야기되는 사건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사건은 사건 그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이슈 분석, 사건 속에 내재된 다양한 쟁점 및 갈등 현상을 파악하는 쟁점 분석 및 갈등 분석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이수상 2017).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건, 현상 등 대부분 정보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은 주로 언론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슈의 생산 및 소비까지의 전 과정에서 언론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성태(2011)는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이슈가 객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며, 각 언론사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따라 권력 유지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담론을 재생산하여 다양한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뉴스 분석 연구를 통해 언론 보도가 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꾸준히 입증되었으며, 언론 보도의 내용분석은 이슈의 해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 구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분석이 가능하다.

최근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공적 활동에 대한 설명 책임성의 보장과 이를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역사기록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해당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만 생산되기 때문에 당시 정부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이 그 나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은 심대하므로 가장 중요한 공공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이상민 2008).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1949년 「정부처무규정」에서 처음으로 법령에 대통령 문서를 언급한 이후, 1991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기록의 이관 및 수집, 폐기, 보존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후 2007년 4월 27일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식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2010년 개정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열람과 관련한 제도가 일부 보완되었다(김유승 2013). 이렇듯 법제화를 통해 관리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사건으로 이슈화되어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크게 노출되었으며, <표 1>에서 나타나듯 2007년 관련 법 제정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는 꾸준히 생산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 5종을 대상으로 지난 10여 년 간의 관련 보도자료를 수집, 해당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했다. 분석결과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보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슈가 구성되며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데올로기 성향이 대비되는 보수와 진보 매체별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매체의

〈표 1〉 대통령기록물 관련 논란 일지

연도	내용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대통령기록물 유출 관련 대상 검찰 조사
	쌀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 공개 파장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가기록관장 직권면직(대통령기록 유출 혐의)
	김영삼 전 대통령기록물 기증
2012년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
2014년	정윤희 게이트, 청와대 문서유출 논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캐비닛 문건)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보고서 조작 논란

특성에 따라 관련 이슈의 어떠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언어 네트워크 분석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언어 텍스트는 각종 연구논문이나 언론기사 등의 자료로 내용분석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언어 텍스트는 심층 면담, 회의, 또는 토론 현장에서 녹취한 정성적 텍스트 자료(면담자료, 토론자문 등)와 이미 형식적인 체계를 갖추어 발표된 문헌적 텍스트 자료(언론기사, 연구문헌, 기록자료 등)로 구분된다(이수상 2014). 언어로 된 텍스트를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이라고 한다. 텍스트에서 추

출한 단어 중에서 의미 또는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선정하여 키워드 또는 핵심어라 하고, 두 키워드가 어떤 기준의 범위(문장, 문단, 소절, 문자열, 문헌 전체 등) 내에서 함께 등장하는 것을 ‘동시 출현’이라 한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키워드 선정 방법과 두 단어 동시 출현 관계를 파악하는 기준에 대해 적절한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자는 언어 네트워크 노드를 선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링크를 선정하는 것이 된다(이수상 2014). 기존의 전통 내용분석 방법과는 달리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 출현하는 단어분석을 중요시 하면서(김수연, 김대욱, 최명일 2013), 단어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정덕호 외 2013). 그리고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인 네트워크로 표현하는데,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들 사이의 관계와 강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이혜준, 이동일, 이주현 2010). 이렇게 구성된 언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때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 도구로는 KISTI에서 개발한

KnowledgeMatrix Plus(이하 KM+)¹)을 비롯해 시각화 기능이 포함된 UCINET,²) NetMiner,³) Pajek,⁴) NodeXL,⁵) Gephi,⁶) R의 SNA 패키지⁷)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측정되는 분석지표에는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이 있으며 네트워크 중심성이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아이겐벡터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 있다. 중심성 분석은 전체 텍스트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단어 간의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된다(Freeman 1979; 이재운, 김수정 2016). 종합적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이수상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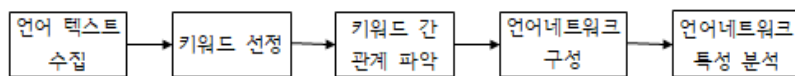
2.2 선행연구

2.2.1 대통령기록 분석

대통령기록물을 분석 대상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박준형 외(2017)의 연구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바탕으로 중심가치를 파악하기 위하

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 연설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추출, 빈도분석 및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그 래프와 네트워크 그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별 정책 변화와 정책 간 연관성 등을 가시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기록물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의 토론이나 연설문, SNS 데이터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한 연구들도 있었다. 박성희(2009)는 제17대 대통령 후보 TV 합동 토론에서 각 후보의 발언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후보들이 자주 사용한 고유 단어들을 대상으로 언어 연결망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수사 분석을 실행, 후보별 이슈 구성의 논증 구조를 살펴보았다. 홍주현, 윤해진(2014)은 제18대 대통령 후보 연설문·담화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가시성 분석과 특정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후보의 연설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재된 메시지는 무엇인지 밝힐 수 있었다. 더불어 모든 후보가 구체적인 정책 제시보다는



<그림 1> 언어 네트워크 분석 과정(이수상 2014)

1) <http://mirian.kisti.re.kr/km/>
 2) <https://sites.google.com/site/ucinetsoftware/home>
 3) <http://www.netminer.com/>
 4) <http://vlado.fmf.uni-lj.si/pub/networks/pajek/>
 5) <https://nodexl.com/>
 6) <https://gephi.org/>
 7) <https://www.rdocumentation.org/packages/sna/versions/2.4>

추상적인 선언만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두원 외(2019)의 연구에서는 탄핵 이후 국내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 및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 및 프레임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선정한 분석대상에 사용된 키워드 간의 관계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기록물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해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그 자체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려는 연구로 그 차이가 있다.

2.2.2 신문기사 분석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김만재와 전방욱(2012)은 인간배아복제 관련 신문 기사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특정 단어가 어떠한 보도 방향을 결정짓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998년과 2001년 '복제'라는 단어가 '치료'나 '성공'과 같은 긍정적 단어와도 강하게 연결되고 '윤리'나 '금지'와 같은 부정적 단어와도 강하게 연결되어 찬반양론이 명확히 보였다. 하지만 5년 후인 2004년 황우석 연구진의 '줄기세포' 사례에서는 '국제적', '치료'와 같은 긍정적 단어가 '반대', '금지'와 같은 단어보다 강하게 연관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언론의 프레임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와 진보성향 언론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권호천(2017)은 '사드'에 관한 이슈를 다룬 신문 기사를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두 언론사의 기사 제목과 부제에서 추출한 주요 단어들의 공동 출현빈도를 파

악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각 단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형태 등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였다. <조선일보>는 안보와 자주국방 프레임을 적용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관점을 보여줬고, <한겨레신문>은 주변국에 대한 '무자극' 프레임과 '무계획적 도입 결정의 무책임' 프레임을 적용해 반대의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어떤 의미 구조와 이슈화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한승희(2018)의 경우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보도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의 '기록관리' 주제에 대한 보도 자료를 추출하여 시계열 기반의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차이를 도출하였다. 이 밖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관련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거대한 이슈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슈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혹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더라도 정치적 쟁점으로만 조명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보도에 나타난 구체적인 인물이나 행위 등 세부 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게 된다면 연구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한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결과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보도에 대해 기간별, 언론매체별 세부 키워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 대상설정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에 대한 매체별 보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보도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구성한 단어들의 출현 빈도와 도출된 핵심단어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주요 언론사가 관련 이슈를 이슈화하는 방식과 의미적 차이 등 보도 특성을 도출한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공식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법률이 적용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범위로, 200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2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둘째, 구체적인 분석 대상 매체를 선별하였다. 분석 대상은 김경희, 노기영(2011)과 백선기(1997)의 연구에서 적용한 매체의 영향력 및 이데올로기 성향 등의 선정 요인에 따라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진보 성향의 한겨레, 경향신문 등 총 5종의 주요 언론사로 선정하였다.

셋째, 자료수집에 사용한 주제어로 연구 초기에는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 '대통령기록관리' 등 3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기록', '대통령기록관리'의 키워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 없는 무의미한 보도자료가 다량 수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기록물'의 키워드를 통한 자료수집의 경우 각 매체에서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보도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키워드로만 주제어를 한정하였다.

넷째, 본격적인 언론 보도 기사 수집을 위해 다음 2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언론사 중 조선일보⁸⁾ 중앙일보⁹⁾ 동아일보¹⁰⁾의 경우에는 각각의 신문사 웹사이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신문기사 리스트를 Python 프로그램의 requests¹¹⁾와 BeautifulSoup4¹²⁾ 라이브러리를 활용 기사의 전문 텍스트(full text)의 형태로 수집하였다. 한겨레,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서비스하는 신문사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사이트인 빅카인즈¹³⁾를 통해 선정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기사들의 전처리 과정을 통해 주제어인 '대통령기록물'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사와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중복되는 기사들을 제거하였다.

3.2 데이터 전처리 및 언어 네트워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집된 보도자료의 제목과 본문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

8) <http://www.chosun.com>

9) <https://joongang.joins.com>

10) <http://www.donga.com>

11) <http://www.python-requests.org/en/master/>

12) <https://pypi.org/project/beautifulsoup4/>

13) <http://www.kinds.or.kr>

석을 실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보도자료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2장에서 설명한 KM+ 소프트웨어(KISTI 2016)를 활용해 명사를 추출한 후 정제과정을 실시하였다. 키워드의 정제 작업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표 2>의 키워드 통제 기준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었다.

<표 2> 키워드 통제 기준과 사례

기준	사례
동의어/유사어	靑 → 청와대, 興 → 여당
복합명사	하드, 디스크 → 하드디스크
조사유무/생략어	남북의 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둘째, 정제가 완료된 키워드를 빈도순으로 나열하여 핵심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이 가운데 빈도가 높고 의미가 뚜렷한 단어 및 관계를 수량화한 동시 출현 매트릭스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는 핵심단어 간의 관계를 수량화하여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핵심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권호천 2017).

셋째, 네트워크 분석 및 가시화 소프트웨어 UCINET을 활용하여 앞서 생성한 동시 출현 매트릭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간의 중심성 지표를 측정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설명한 다양한 중심성 분석 방법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주제인 핵심 이슈 파악과 보도 성향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연결중심성을 선택하였다. 또한

UCINET 내의 Netdraw¹⁴⁾를 사용하여 분석한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4.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분석

4.1 언론 보도자료 시계열 분석

<표 3>은 주제어인 '대통령기록물'의 검색결과에 따라 수집된 매체별 보도자료의 전체 건수와 정제 작업을 통해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별한 자료 수를 정리한 표로, 전체 3,188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정제 작업을 통해 2,755건이 분석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정제작업을 통해 제외된 기사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와 큰 연관도가 없는 기사(예: 대통령기록물 관련 인사이동 및 발령 등) 및 다른 언론사 임에도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모두 중복되는 기사들을 제거하였다. 분석대상의 수집 기간인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2년간 매체별 합계를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828건이 수집되었으며, 경향신문 631건, 한겨레 591건, 중앙일보 515건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수집되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190건으로 가장 적은 양이 수집되었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매체별 관심도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매체의 성향에 따른 종합 건수를 파악한 결과, 보수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총 1,533건이 수집되었으며, 진보성향의

14) <https://sites.google.com/site/netdrawsoftware/home>

〈표 3〉 분석 대상 전체 건수

구분	매체 성향	'대통령기록물' 관련 언론 보도자료 전체 수집 건수				정제 작업(중복, 미 관련) 적용 건수				
		828건	515건	190건	591건	631건	합계	1,533건	합계	2,755건
조선일보	보수	891건	합계	1,673건	총 합계	3,188건	합계	1,533건	총 합계	2,755건
중앙일보	보수	566건								
동아일보	보수	216건	합계	1,515건						
한겨레	진보	724건					합계	791건		
경향신문	진보	79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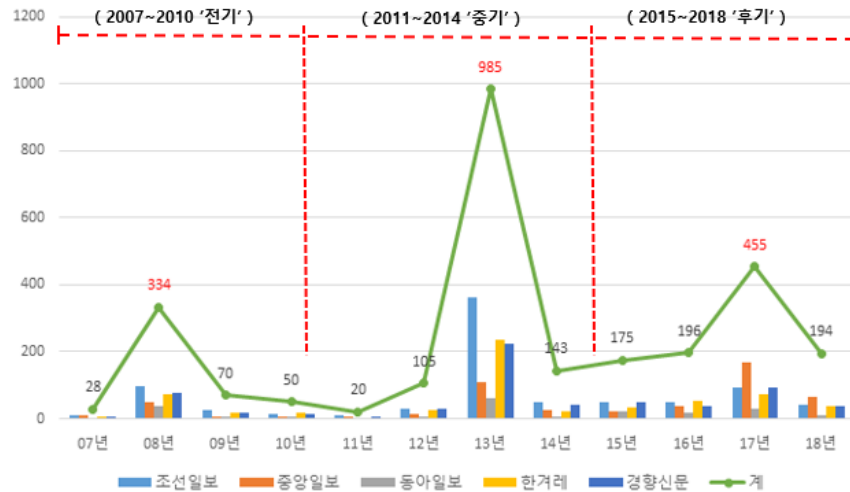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222건이 수집되었다. 보수성향의 언론사의 경우 조선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두 언론사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이는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언론사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균등한 비율의 보도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4〉는 수집된 언론사별 언론 보도자료의 수치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 4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모든 매체에서 언론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새롭게 생겨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를 통해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해당 시기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낮게 인식되었음을 반증한

다. 반면 다음 해인 2008년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이슈의 언론 보도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언론매체의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관련 이슈의 생산량은 하락하다가 2013년에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또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하락세를 지나 2017년 다시 한 번 상승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08년, 2013년, 2017년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나타나는 요인이 있었다. 해당 시점이 정권교체 시기로, 후임 대통령의 부임 연도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보도가 대통령의 정권교체 이후 전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대중에게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표 4〉 분석 대상의 연도별 표본

연도별 '대통령기록물' 관련 보도 자료(건)														
매체	연도	'전기'				'중기'				'후기'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조선일보		8	97	27	15	11	28	360	51	49	49	93	40	828
중앙일보		10	48	7	3	4	14	107	24	23	39	169	67	515
동아일보		0	37	1	2	0	7	61	6	21	16	28	11	190
한겨레		5	74	18	16	0	25	234	22	34	53	72	38	591
경향신문		5	78	17	14	5	31	223	40	48	39	93	38	631
계		28	334	70	50	20	105	985	143	175	196	455	194	2,755



〈그림 2〉 연도 및 매체별 총 언론 보도 증감 추이

〈그림 2〉는 위에 언급된 언론 보도량에 대한 종합적인 수치를 도식화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보도의 증감 추이를 나타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12년 동안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4년 단위의 '전기', '중기', '후기'로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4.2 언론 보도 핵심 키워드 분석

4.2.1 전체(2007년~2018년) 기간 분석 결과 〈표 5〉는 수집된 전체 언론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핵심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순으로 나타낸 표이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노무현'이었으며, 다음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검찰' 등의 단어가 뒤이어 나타났다.

대통령기록물과 관련 이슈에 등장하는 인물(노랑색: ■)은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박

근혜' 등 전 현직 대통령이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통령 외에 등장한 인물 키워드로는 '조웅천', '김정일', '최순실', '정윤희'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다음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청와대', '검찰', 'NLL',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와 관련한 사건의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특히 '공개', '유출', '수사', '실종', '삭제' 등의 행위와 관련된 키워드(하늘색: ■)를 통해 이슈와 관계하여 어떠한 과정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는지 유추된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와 관계한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는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노무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청와대', '공개' 등의 키워드(파랑색: ■)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중 '2012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빈도순서에 따라 나열한

〈표 5〉 대통령기록물 관련 전체 언론 보도자료에 대한 상위 50위 빈도 키워드

순위	키워드('전체')	빈도	순위	키워드('전체')	빈도
1	노무현	430	26	조사	83
2	남북정상회담	417	27	의혹	83
3	대화록	413	28	실종	81
4	청와대	410	29	여야	80
5	대통령기록물	398	30	삭제	76
6	검찰	386	31	지시	75
7	문재인	277	32	폐기	71
8	공개	268	33	영장	69
9	국가기록원	261	34	고발	68
10	NLL	227	35	새누리당	67
11	이명박	214	36	조용천	66
12	문건	208	37	정보공개	62
13	박근혜	192	38	민주당	61
14	회의록	174	39	협의	61
15	정부	172	40	정치	60
16	유출	171	41	세월호	59
17	수사	167	42	구속	59
18	압수수색	154	43	김정일	56
19	국정원	142	44	e지원시스템	52
20	국정	118	45	소환	50
21	여당	113	46	최순실	50
22	열람	112	47	발언	47
23	논란	107	48	원본	47
24	대통령기록관	104	49	이관	47
25	자료	94	50	정윤희	47

* 노랑색 ■ : 중심인물, 파랑색 ■ : 이슈 키워드, 하늘색 ■ : 사건 행위 키워드

상위 키워드로, 해당 단어 간의 세밀한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그림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년 단위의 범위로 나눠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기술했다.

4.2.2 전기(2007년~2010년) 기간 분석 결과

〈표 6〉은 앞서 설정한 4년 단위 시기 중 첫째 인 '전기'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핵심키워드를 빈도순으로 정렬한 표이다.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인물(노랑색: ■)로는 재임 기간에 해당하는 대통

령인 '노무현', 과 '이명박' 키워드가 상위에 위치하였다. 해당 시기의 중점 이슈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도출된 핵심키워드(〈표 5〉 참조)와 비교하여 순위가 상승한 '대통령기록물', '유출', '조사', '고발' 등의 키워드(파랑색: ■)를 토대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사건'이 주를 이루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시기에는 〈표 5〉에서 출현하지 않았던 '봉하마을', '하드디스크', '서버', '온세통신' 등 중점 이슈와 관련한 새로운 키워드(보라색: ■)가 출현하였으며, '쌀 직불금', '서거', '김대중', '대통령기록관' 등 '쌀 직불금 공개논란',

〈표 6〉 ‘전기’ (2007년~2010년) 상위 50위 빈도 키워드

순위	키워드 (통합 '전기')	빈도	키워드 (‘전체’)	빈도	순위	키워드 (통합 '전기')	빈도	키워드 (‘전체’)	빈도
1	노무현	193	노무현	430	26	논란	11	조사	83
2	대통령기록물	168	남북정상회담	417	27	대통령기록관장	11	의혹	83
3	청와대	90	대화록	413	28	열람	11	실종	81
4	유출	65	청와대	410	29	쌀직불금	11	여야	80
5	검찰	55	대통령기록물	398	30	반납	10	삭제	76
6	자료	42	검찰	386	31	정권	10	지시	75
7	봉하마을	40	문재인	277	32	하드디스크	10	폐기	71
8	국가기록원	38	공개	268	33	사본	9	영장	69
9	정부	26	국가기록원	261	34	압수수색	9	고발	68
10	고발	24	NLL	227	35	의혹	9	새누리당	67
11	서버	21	이명박	214	36	김대중	8	조웅천	66
12	공개	18	문건	208	37	정보	8	정보공개	62
13	반출	17	박근혜	192	38	행정관	8	민주당	61
14	반환	17	회의록	174	39	검토	7	협의	61
15	조사	17	정부	172	40	의심	7	정치	60
16	e지원시스템	16	유출	171	41	지시	7	세월호	59
17	이명박	16	수사	167	42	참여	7	구속	59
18	불법	15	압수수색	154	43	분석	6	김정일	56
19	소환	15	국정원	142	44	요구	6	e지원시스템	52
20	수사	15	국정	118	45	원본	6	소환	50
21	시스템	15	여당	113	46	참여정부	6	최순실	50
22	대통령기록관	13	열람	112	47	정보공개	4	발언	47
23	서거	13	논란	107	48	한나라당	4	원본	47
24	압수	13	대통령기록관	104	49	온세통신	3	이관	47
25	정치	12	자료	94	50	직무정지	3	정윤희	47

* 노랑색 ■: 중심인물, 파랑색 ■: 공통 이슈, 보라색 ■: 특정 시기 주요 사건 키워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슈’, ‘김대중 대통령기록관 설립 이슈’ 등과 같이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도출하였을 때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이슈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출현하였다.

4.2.3 중기(2011년~2014년) 기간 분석 결과
〈표 7〉은 ‘중기’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키워드 빈도를 정렬한 표이다. ‘중기’의 경우,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등 재임 기간 외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전부 등장하였으며 ‘김정일’, ‘김무성’, ‘정문헌’, ‘정윤희’,

‘남재준’ 등 새로운 인물 키워드(노랑색: ■)들이 출현하였다. 이를 〈표 5〉와 비교해보면 해당 시기에 발생한 이슈들은 ‘노무현’, ‘문재인’, ‘김정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록’, ‘NLL’, ‘검찰’, ‘공개’, ‘남북정상회담’ 등의 키워드(파랑색: ■)가 상위에 자리한 것으로 보아, ‘중기’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이 중점으로 보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정윤희’, ‘문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정윤희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임을

〈표 7〉 ‘중기’ (2011년~2014년) 상위 50위 빈도 키워드

순위	키워드 (통합 ‘중기’)	빈도	키워드 (‘전체’)	빈도	순위	키워드 (통합 ‘중기’)	빈도	키워드 (‘전체’)	빈도
1	대화록	357	노무현	430	26	국정	40	조사	83
2	NLL	211	남북정상회담	417	27	폐기	40	의혹	83
3	노무현	195	대화록	413	28	발언	39	실종	81
4	검찰	176	청와대	410	29	의혹	39	여야	80
5	공개	172	대통령기록물	398	30	국회	37	삭제	76
6	대통령기록물	166	검찰	386	31	원본	37	지시	75
7	회의록	162	문재인	277	32	e지원시스템	36	폐기	71
8	남북정상회담	129	공개	268	33	자료	36	영장	69
9	국정원	127	국가기록원	261	34	문건	35	고발	68
10	문재인	105	NLL	227	35	박근혜	33	새누리당	67
11	열람	85	이명박	214	36	이명박	32	조응천	66
12	실종	78	문건	208	37	조사	31	정보공개	62
13	수사	75	박근혜	192	38	김무성	30	민주당	61
14	여야	73	회의록	174	39	정문헌	30	협의	61
15	국가기록원	67	정부	172	40	확인	28	정치	60
16	논란	65	유출	171	41	정치	27	세월호	59
17	새누리당	65	수사	167	42	관리	25	구속	59
18	청와대	64	압수수색	154	43	소환	24	김정일	56
19	정부	60	국정원	142	44	공방	23	e지원시스템	52
20	삭제	59	국정	118	45	정윤희	23	소환	50
21	민주당	59	여당	113	46	파문	23	최순실	50
22	김정일	56	열람	112	47	포기발언	23	발언	47
23	지시	47	논란	107	48	대선	22	원본	47
24	유출	46	대통령기록관	104	49	남재준	21	이관	47
25	여당	45	자료	94	50	비서관	20	정윤희	47

* 노랑색 ■ : 중심인물, 파랑색 ■ : 공통 이슈, 보라색 ■ : 특정 시기 주요 사건 키워드

파악할 수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김무성’, ‘정문헌’, ‘남재준’, ‘관리’, ‘포기 발언’, ‘대선’ 등의 키워드(보라색: ■)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슈’,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이슈’ 등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계한 이슈들이 추가로 보

4.2.4 후기(2015년~2018년) 기간 분석 결과
〈표 8〉은 ‘후기’에 해당하는 이슈의 키워드를

정렬한 표이다. 먼저 ‘후기’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인물 키워드(노랑색: ■)를 살펴보면, ‘노무현’의 키워드의 빈도가 감소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또한 ‘최순실’, ‘조응천’, ‘송민순’, ‘박관천’, ‘황교안’ 등의 인물 키워드가 새롭게 출현하였다. 이를 〈표 5〉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도출한 키워드와 비교하였을 때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조응천’, ‘정윤희’의 키워드의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해당 시기에 발생한 이슈의 중심인물이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표 8〉 ‘후기’ (2015년~2018년) 상위 50위 빈도 키워드

순위	키워드 (통합 ‘후기’)	빈도	키워드 (‘전체’)	빈도	순위	키워드 (통합 ‘후기’)	빈도	키워드 (‘전체’)	빈도
1	청와대	235	노무현	430	26	특검	30	조사	83
2	문건	165	남북정상회담	417	27	문서	28	의혹	83
3	이명박	163	대화록	413	28	압수수색	28	실종	81
4	검찰	151	청와대	410	29	폐기	28	여야	80
5	박근혜	143	대통령기록물	398	30	국가	27	삭제	76
6	대통령기록물	141	검찰	386	31	발견	27	지시	75
7	정부	75	문재인	277	32	송민순	26	폐기	71
8	수사	73	공개	268	33	고발	24	영장	69
9	공개	62	국가기록원	261	34	구속영장	24	고발	68
10	유출	58	NLL	227	35	정운회	24	새누리당	67
11	문재인	50	이명박	214	36	박관천	23	조응천	66
12	세월호	50	문건	208	37	위안부	23	정보공개	62
13	최순실	49	박근혜	192	38	이관	23	민주당	61
14	조응천	46	회고록	174	39	회고록	23	협의	61
15	협의	46	정부	172	40	기소	22	정치	61
16	구속	44	유출	171	41	국정농단	21	세월호	59
17	영장	44	수사	167	42	사건	21	구속	59
18	캐비닛	39	압수수색	154	43	청구	21	김정일	56
19	조사	34	국정원	142	44	법원	20	e지원시스템	52
20	의혹	33	국정	118	45	지시	20	소환	50
21	대통령기록관	32	여당	113	46	노무현	19	최순실	50
22	국정	31	열람	112	47	정치	19	발언	47
23	논란	31	논란	107	48	국가기록원	18	원본	47
24	무죄	31	대통령기록관	104	49	다스	18	이관	47
25	증거	30	자료	94	50	황교안	18	정운회	47

* 노랑색 ■: 중심인물, 파랑색 ■: 공통 이슈, 보라색 ■: 특정 시기 주요 사건 키워드

또한 해당 시기에는 ‘청와대’, ‘문건’, ‘세월호’, ‘유출’ 등이 상위 키워드(파랑색: ■)로 자리 잡았으며, ‘캐비닛’, ‘국정농단’, ‘위안부’, ‘회고록’, ‘다스’ 등의 키워드(보라색: ■)가 새롭게 나타났다. 이를 <표 5>와 비교해보면, ‘청와대’, ‘문건’, ‘세월호’의 키워드의 순위가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가 중점 보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검’, ‘국정농단’, ‘캐비닛’, ‘무죄’, ‘위안부’, ‘송민순’, ‘회고

록’, ‘다스’ 등 해당 시기에 등장한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를 보완하는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이처럼 ‘후기’의 시기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및 ‘세월호 보고서’ 논란이 중점 이슈로 형성되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위안부 협상 문서 봉인’, ‘송민순 회고록’, ‘황교안 대통령기록 봉인’, ‘이명박 대통령기록물 유출협약’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생성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요 언론사의 전체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시계열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구성요소를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선 분석은 모든 언론사를 수집된 보도자료를 통합하여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매체의 성향에 따른 보도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매체의 성향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보도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5. 매체별 특성 분석

본 장에서는 매체별 특성 분석 대상으로 5종의 언론사 중 언론사의 성향(보수, 진보) 및 수집 건수를 기준으로, 보수성향의 매체에서는 조선일보를, 진보성향의 매체에서는 경향신문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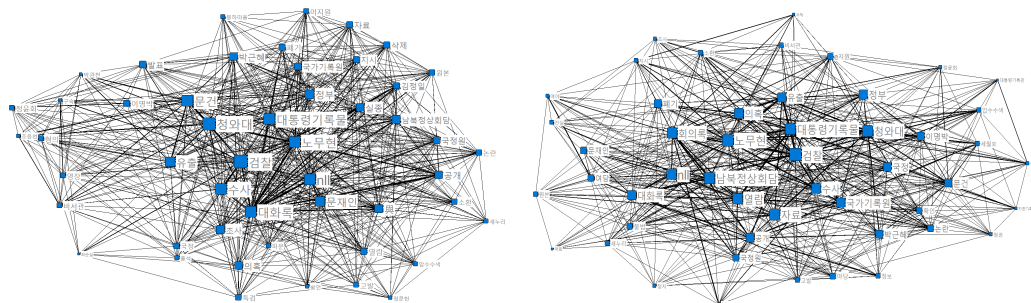
〈그림 3〉은 언론사별 상위 50개 핵심키워드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것으로, 노드의 크기 가 클수록 연결 정도는 높게 나타나며,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빈도가 높을수록 서로 인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노드 간의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노드 간의 연결된 링크의 경우 연결선의 두께에 따라 키워드 간의 연계 빈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결선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연계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이수상 2014).

〈그림 3〉에서는 공통으로 허브 역할을 맡은 ‘노무현’, ‘대화록’,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과 같은 노드들을 중심으로 두껍고 얇은 링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 관계망의 밀도가 높게 표현되면 노드 간의 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해 관계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시기별 기준을 적용하여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시기별 키워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5.1 매체별 핵심 키워드 비교

〈표 9〉는 ‘전기’에 해당하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키워드들을 빈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이다. 두 매체 모두 1~5위까지 동등하게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조선일보 핵심 키워드

경향신문 핵심 키워드

〈그림 3〉 언론사별 핵심키워드 top 50 네트워크

〈표 9〉 '전기' (2007년~2010년)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의 상위 50위 빈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1	노무현	71	노무현	52	26	서거	3	대응	4
2	대통령기록물	48	대통령기록물	43	27	서면조사	3	보장	4
3	청와대	31	청와대	25	28	선물	3	불법	4
4	유출	24	유출	20	29	여당	3	서거	4
5	검찰	18	검찰	16	30	정치	3	수색	4
6	봉하마을	13	국가기록원	14	31	지시	3	이관	4
7	조사	10	자료	14	32	하드디스크	3	인수위	4
8	자료	8	봉하마을	10	33	행자부	3	정권	4
9	e지원시스템	7	정부	9	34	검토	2	하드디스크	4
10	서버	7	고발	8	35	계획	2	공개	3
11	고발	6	열람	8	36	대통령기록관장	2	대통령기록관장	3
12	공개	6	공방	7	37	국회	2	무관	3
13	반납	6	소환	7	38	민주당	2	반납	3
14	불법	6	시스템	7	39	박근혜	2	비서관	3
15	이명박	5	반출	6	40	반환	2	정보	3
16	소환	5	압수수색	6	41	방침	2	정보공개제도	3
17	정부	5	이명박	6	42	사본	2	조사	3
18	김해	4	논란	5	43	압수	2	지시	3
19	쇠고기	4	서버	5	44	여야	2	쌀직불금	3
20	수사	4	수사	5	45	유품	2	진실	3
21	시스템	4	참여정부	5	46	지정기록물	2	회의록	3
22	원본	4	행정관	5	47	쌀직불금	2	기념관	2
23	의혹	4	e지원시스템	4	48	추진	2	대통령기록관	2
24	반출	3	검토	4	49	통화	2	도서관	2
25	불편	3	국가기록	4	50	흡집	2	부패	2

* 파랑색 ■: 공통 이슈 키워드, 분홍색 ■: 조선일보의 새롭게 등장한 이슈 키워드, 주황색 ■: 경향신문의 새롭게 등장한 이슈 키워드

'청와대', '유출', '검찰', '봉하마을' 키워드(파랑색: ■)가 나타났다. 이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에 대해 중점 보도했음을 반증한다. 한편 매체별로 중점 이슈 이외의 새로운 이슈가 출현하였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쇠고기', '선물', '통화', '유품' 등의 키워드(분홍색: ■)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지정기록물인 '미 쇠고기 통화 내용 공개'와 관련한 이슈, '박정희 대통령이 받은 선물 및 유품 공개'와 관련한 이슈들이 보도되

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정보공개제도', '기념관', '도서관' 등의 키워드(주황색: ■)가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제도', '대통령 기념관 및 도서관 설립'과 관련한 이슈들이 보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공통으로 다룬 '대통령기록물 유출'사건 외에도 상기한 키워드를 통해 나타난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보도의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에서는 '중기'에 해당하는 매체별 대통

〈표 10〉 ‘중기’ (2011년~2014년)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의 상위 50위 빈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1	대화록	158	회의록	71	26	조사	18	여야	11
2	노무현	108	대통령기록물	52	27	파문	18	국정농단	10
3	NLL	100	검찰	42	28	발언	16	정부	10
4	회의록	87	남북정상회담	41	29	의원	16	지시	10
5	검찰	76	NLL	39	30	정문헌	16	국회	9
6	문재인	60	대화록	32	31	지시	16	원본	9
7	공개	54	열람	31	32	박근혜	15	정보	9
8	여당	53	국정원	30	33	원본	15	정치	9
9	실종	50	공개	28	34	국정	13	청와대	9
10	남북정상회담	46	노무현	28	35	대선	13	e지원시스템	8
11	대통령기록물	45	수사	22	36	의혹	13	삭제	8
12	김정일	42	국가기록원	19	37	폐기	13	소환	8
13	여야	42	여당	18	38	e지원시스템	12	야당	8
14	민주당	35	문재인	16	39	자료	12	관리	7
15	국정원	31	의원	16	40	포기발언	12	정윤희	7
16	청와대	31	국정	15	41	국회	11	개입	6
17	열람	29	새누리당	15	42	소환	11	김무성	6
18	수사	25	의혹	14	43	영장	11	박근혜	6
19	논란	24	이명박	14	44	출석	11	압수수색	6
20	국가기록원	23	실종	13	45	국정원장	9	정보공개	6
21	삭제	23	유출	13	46	발표	9	제출	6
22	정부	23	자료	13	47	비서관	9	조사	6
23	유출	22	폐기	13	48	서상기	9	초본	6
24	문건	19	논란	12	49	정윤희	9	대통령기록관	5
25	새누리	19	민주당	11	50	이명박	8	세월호	5

* 노랑색 : 중심인물, 파랑색 : 공통 이슈, 분홍색 : 조선일보 이슈 키워드, 주황색 : 경향신문 이슈 키워드

령기록물 관련 이슈 키워드의 빈도표이다. 두 매체 모두 상위 키워드(파랑색:■)로 ‘대화록’, ‘회의록’, ‘검찰’, ‘남북정상회담’, ‘NLL’이 나타났다. 이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모두 남북 정상회담의 NLL 대화록이나 회의록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중점 보도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매체별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된 빈도의 차이(노랑색:■)가 뚜렷이 나타났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노무현’ (108회), ‘문재인’ (60회), ‘이명박’ (14회), ‘김정일’ (42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향신문의 경우 ‘노무현’ (28회), ‘문재인’

(16회), ‘이명박’ (8회), ‘김정일’ (2회)가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전체 수집 건수는 각각 828건과 631건으로 약 190여 건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된 정도의 차이는 전체 보도량의 차이를 뛰어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매체에 따라 특정 인물의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행태가 확인되었다.

또한 매체별로 새로운 이슈 보도 행태를 보였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대선’, ‘정문헌’, ‘포기발언’ 등 새로운 키워드(분홍색:■)가 출현하였다. 이는 NLL 대화록 이슈 중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이슈, '정문헌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관련한 이슈 등을 추가 보도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국정농단', '세월호', '관리', '정보공개' 등 새로운 키워드(주황색: ■)가 출현하였는데, 이는 'NLL 대화록 이슈' 외에 '대통령기록물의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이슈라던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이슈, '김무성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관련한 이슈 등을 추가 보도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1〉은 '후기'에 해당하는 매체별 키워드

비교표로, 양 매체 모두 '청와대', '문건', '유출',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등의 키워드가 상위 키워드(파랑색: ■)에 자리하였다. 이는 '청와대 문건유출' 및 '최순실 국정농단' 이슈와 관계한 핵심키워드이다.

한편 조선일보의 경우 '조응천', '캐비닛', '박관천', '무죄' 등의 키워드(분홍색: ■)들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일보의 상기 두 이슈들에 관한 심화 보도관점을 대변한다. 반면 경향신문 키워드(주황색: ■)를 살펴보면, '세월호', '위안부', '노무현', '회고록', '7시간',

〈표 11〉 '후기' (2015년~2018년)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의 상위 50위 빈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1	청와대	84	대통령기록물	64	26	고발	7	지정기록물	6
2	문건	62	청와대	37	27	구성	7	국정농단	5
3	검찰	50	박근혜	34	28	문서	7	논란	5
4	이명박	32	이명박	22	29	발견	7	비서관	5
5	박근혜	28	세월호	18	30	조사	7	시민	5
6	수사	24	검찰	17	31	증거	7	압수	5
7	유출	24	정부	17	32	청구	7	정윤회	5
8	조응천	22	공개	15	33	출석	7	지시	5
9	공개	19	의혹	13	34	국가	6	진실	5
10	정부	19	위안부	11	35	국정농단	6	참사	5
11	구속	17	수사	10	36	기소	6	특검	5
12	대통령기록물	16	이관	9	37	뇌물	6	파문	5
13	최순실	16	국정	8	38	대통령기록관	6	폐기	5
14	구속영장	15	유출	8	39	징역	5	합의	5
15	협의	15	노무현	7	40	사건	6	황교안	5
16	문재인	13	문건	7	41	송민순	6	무죄	4
17	캐비닛	13	불법	7	42	의혹	6	문재인	4
18	박관천	12	최순실	7	43	정윤회	6	발견	4
19	특검	12	회고록	7	44	증인	6	법원	4
20	논란	9	7시간	6	45	법원	5	보호	4
21	무죄	9	국가기록원	6	46	보고서	5	비밀	4
22	비서관	9	남북정상회담	6	47	우병우	5	압수수색	4
23	압수수색	9	대통령기록관	6	48	정권	5	정권	4
24	국정	8	열람	6	49	정치	5	캐비닛	4
25	발표	8	위반	6	50	사표	5	협의	4

* 파랑색 ■: 공통 이슈 키워드, 분홍색 ■: 조선일보 이슈 키워드, 주황색 ■: 경향신문 이슈 키워드

‘지정기록물’ 등 위의 키워드들이 상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일보에서 도출된 키워드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위의 키워드는 ‘세월호 7시간 보고서’에 관한 이슈 및 ‘위안부 협의 문건 공개’, ‘황교안 권한 대행의 지정기록물 지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슈의 진실’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경향신문에서는 조선일보와 공통으로 보도한 2가지 사건 외에도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들을 보도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시기별 키워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시기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보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매체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12>와 같이 특정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키워드를 재추출하였다. 신문보도의 특성상 대부분의 핵심키워드는 모두 특정 개체명(named entity)에 해당하는 고유명사로, 특히 ‘인물’이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물’과 그 외 기관명, 단체명, 기록물 명 등을 ‘개체’라고 구별하여 제시하였으며, 네트워크 관계의 시각화를 단순화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별로 1~20위까지의 핵심키워드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행하였다. 특히 이후 노드의 관계 크기에

따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대통령 관련 이슈에 대한 세밀한 네트워크 관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5.2 매체별 ‘인물’ 키워드 비교분석

<표 13>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에 등장한 ‘인물’ 키워드를 빈도에 따라 정렬한 표로,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된 빈도의 차이(파랑색:■)가 매체별로 뚜렷이 나타났다. 조선일보의 경우 ‘노무현’(183회), ‘문재인’(74회), ‘김정일’(42회), ‘조용천’(31회)가 나타난 반면 경향신문에서는 각각 ‘노무현’(86회), ‘문재인’(20회), ‘김정일’(2회), ‘조용천’(7회)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5.1장의 시기별 분석에 도출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체의 성향에 따라 동일 이슈일지라도 특정 인물의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매체에 따른 등장인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김만복’, ‘안철수’, ‘송민순’, ‘우병우’, ‘김영삼’의 키워드(분홍색:■)가 출현하였다. 해당 키워드들은 각각 ‘송민순 회고록 사건’, ‘안철수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반대’, ‘우병우 캐비닛 문건 공개 사안’, ‘김영삼기념관 건립 이슈’와 관련이 있다. 반면, 경

<표 12>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핵심키워드 추출 기준

기준		내용
인물		노무현, 박근혜, 정문헌 등
인물 외 관련 개체	기관, 단체	청와대, 대통령기록관, 민주당, 새누리당 등
	사건	NLL, 남북정상회담, 세월호, 위안부 등
	기록	자료, 정보, 회의록, 문건 등
행위		고발, 구속, 조사, 의혹 등

〈표 13〉 매체별 '인물' 핵심키워드 빈도 및 연결중심성 비교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조선일보)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경향신문)	키워드 (조선일보)	연결중심성 (조선일보)	키워드 (경향신문)	연결중심성 (경향신문)
1	노무현	183	노무현	86	노무현	0.084	노무현	0.105
2	문재인	74	이명박	42	김정일	0.064	박근혜	0.105
3	김정일	42	박근혜	32	문재인	0.036	이명박	0.092
4	박근혜	39	문재인	20	조용천	0.017	조명균	0.053
5	이명박	38	정윤희	12	박관천	0.016	조용천	0.039
6	조용천	31	박정희	7	정문헌	0.014	김정일	0.026
7	박관천	18	조용천	7	김만복	0.012	문재인	0.026
8	정문헌	16	최순실	7	서상기	0.011	박관천	0.026
9	최순실	16	김무성	6	정윤희	0.011	백종천	0.026
10	정윤희	15	박관천	6	조명균	0.011	황교안	0.026
11	서상기	9	정문헌	5	이명박	0.008	남재준	0.013
12	김만복	7	황교안	5	송민순	0.007	서상기	0.013
13	김무성	7	서상기	4	김경수	0.005	정윤희	0.013
14	남재준	7	조명균	4	김무성	0.005	최순실	0.013
15	안철수	7	전두환	3	박근혜	0.005	김경수	0
16	조명균	7	김경수	2	남재준	0.003	김무성	0
17	송민순	6	김정일	2	안철수	0.001	박영수	0
18	우병우	5	남재준	2	우병우	0.001	박정희	0
19	김경수	4	박영수	2	김영삼	0.000	전두환	0
20	김영삼	3	백종천	2	최순실	0.000	정문헌	0

* ■ : 공통 인물 키워드, 분홍색 ■ : 조선일보의 새롭게 등장한 인물 키워드, 주황색 ■ : 경향신문의 새롭게 등장한 인물 키워드

향신문의 경우(주황색: ■) 조선일보의 인물 키워드에 나타나지 않은 '박정희', '황교안', '전두환', '박영수', '백종천'이 등장하였다. 이들 키워드는 '박정희 기념관 설립 이슈',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전두환 대통령기록물 이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팀' 등의 이슈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매체별로 등장한 인물 외의 추가 보도 양상이 다를 수 확인하였다.

〈그림 4〉는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인물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를 시각화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관계에 있어 관계 크기가 클수록 연결 강도가 높은 노드이며, 노드 간의 연결강도가 높을수록 링크는 두껍게 표현된다

(김만재, 전방욱 2012). 예를 들어, 〈그림 4〉의 조선일보 '인물' 네트워크에서 표현된 '노무현'과 '김정일' 키워드의 링크는 두껍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대통령기록물 관련 중심인물로 연결강도가 가장 높은 '노무현'과 '김정일'의 관계를 가장 많이 보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용천'과 '박관천',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 이슈를 중점 보도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이명박'과 '노무현'의 관계를 다룬 이슈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박근혜'와 '황교안', '조용천'과 '박관천', '조명균'과 '백종천'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도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표 15> 매체별 '행위' 핵심키워드 빈도 및 네트워크 분석값 비교

순위	키워드 (조선일보)	빈도	키워드 (경향신문)	빈도	키워드 (조선일보)	연결 중심성	키워드 (경향신문)	연결 중심성
1	공개	79	공개	46	유출	0.287	유출	0.132
2	유출	70	열람	43	수사	0.181	의혹	0.126
3	수사	53	유출	41	실종	0.175	수사	0.095
4	실종	51	수사	37	조사	0.164	논란	0.047
5	논란	35	의혹	29	지시	0.146	지시	0.047
6	조사	35	논란	22	의혹	0.135	폐기	0.047
7	열람	32	폐기	20	폐기	0.135	고발	0.042
8	구속	25	지시	18	공개	0.123	소환	0.042
9	삭제	25	소환	15	소환	0.111	열람	0.042
10	의혹	23	이관	14	혐의	0.099	공개	0.037
11	지시	23	고발	13	논란	0.094	혐의	0.032
12	폐기	22	실종	13	삭제	0.094	삭제	0.021
13	혐의	22	조사	12	구속	0.088	확인	0.021
14	고발	19	확인	12	기소	0.088	발언	0.016
15	발언	17	검토	9	열람	0.088	조사	0.016
16	소환	17	삭제	9	발언	0.082	검토	0.011
17	압수수색	17	합의	9	고발	0.07	반출	0.011
18	확인	13	발언	8	포기	0.064	합의	0.011
19	기소	12	혐의	8	확인	0.041	실종	0.005
20	포기	12	반출	7	압수수색	0.041	이관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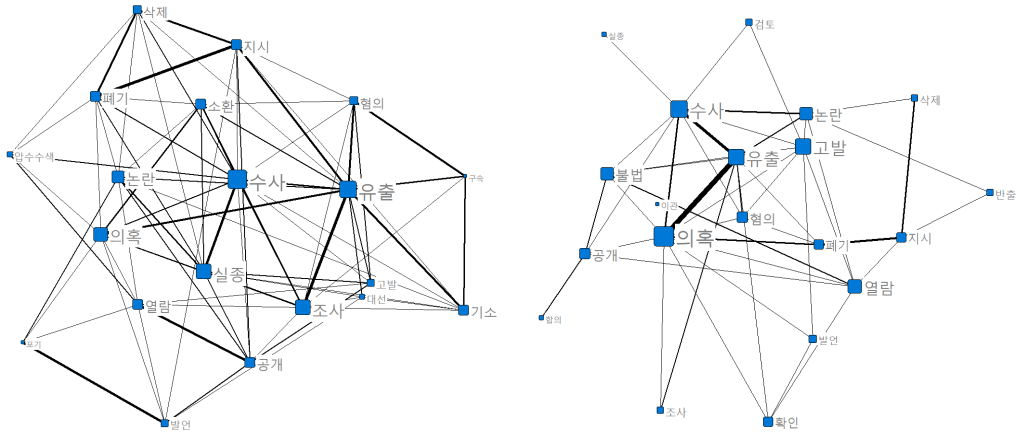
* ■ : 공통 행위 키워드, 분홍색 ■ : 조선일보의 새롭게 등장한 개체 키워드, 주황색 ■ : 경향신문의 새롭게 등장한 개체 키워드

관련 이슈 보도의 중점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거나 유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매체별로 분석해보면, 조선일보의 행위 키워드(분홍색:■) 중 경향신문의 핵심키워드에 나타나지 않은 키워드는 '구속', '압수수색', '기소', '포기'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구속', '압수수색', '기소'의 키워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슈의 관련 인물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한 키워드이며, '포기'의 키워드는 NLL 대화록 이슈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한 키워드였다. 반면 경향신문의 핵심키워드(주황색:■)는 '이관', '검토', '합의', '반출' 등으로,

각각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해당 법률에 대한 위반 여부 검토,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6>의 매체별 행위 키워드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경향신문에 비해 '폐기'와 '지시'의 연결강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지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음을 암시한다. 반면, 경향신문의 경우 '의혹'과 '열람', '고발' 등의 관계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표 1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관련한 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행위'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경향신문 '행위' 키워드 네트워크 지도
 <그림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행위 키워드 네트워크(조선일보, 경향신문)

6. 결론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슈를 구성하고 보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집 기간의 범위를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 제정일인 2007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12년간의 주요 언론사 5종(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을 선정하여 보도자료를 수집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에 대한 매체별 관심도는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매체성향에 따른 보도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보수성향의 언론사의 경우 조선일보를 제외한 두 곳은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어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며, 진보성향의 언론사의 경우 두 곳 모두 균등한 비율의 보도 양상을 보였다. 보도자료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진행한 결과, 매체의 성향과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보도량

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의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12년의 수집 기간 중 3번이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2013년, 2017년으로 정권 교체 이후 후임 대통령의 부임 연도와 일치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보도는 전임 대통령의 정권교체와 맞물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관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언론사를 통해 이슈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언론사의 통합된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핵심키워드를 도출하고 빈도에 따른 시기별 대통령기록물 관련 중점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매체 성향에 따른 이슈 보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 성향을 대표하는 매체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인물', '인물 외 관련 개체', '행위'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핵심키워드를 구분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주요 언론사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중점 이슈의 구성 및 매체 성향에 따른 보도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요 언론사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이슈를 어떻게 구성하고 보도하는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텍스트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내용 분석을 실행한 점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국내의 언론사 중 중앙지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과 보수와 진보의 성향을 대표하

는 언론사로 각각 한 개의 매체만을 대상으로 보도 특성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이 일부 편향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각도로 비교할 계획이며, 언론 보도의 이슈분석 결과와 실제 학문적 연구 동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 권호천. 2017. 사드(THAAD)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네트워크 분석 -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2): 114-154.
- 김경희, 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361-387.
- 김만재, 전방욱. 2012. 언어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인간배이복제 신문보도 분석. 『생명윤리』, 13(2): 19-34.
- 김수연, 김대욱, 최명일. 2013. 한국 광고홍보학 연구경향 언어네트워크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15(1): 59-85.
- 김유승. 2013.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7-30.
- 박성태. 2011. 사회 갈등적 공공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5(3): 97-118.
- 박성희. 2009. 제17대 대통령 후보 합동 토론 언어네트워크 분석- 북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20-254.
- 박준형, 유호선, 김태영, 한희정, 오효정. 2017. 대통령 연설기록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대통령의 중심 가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57-78.
- 백선기. 1997. 제15대 총선 보도시의 가십기사 유형과 심층구조. 『한국언론학보』, 41: 41-107.
- 이상민. 2008.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기록학연구』, 18: 281-315.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 49-68.
- 이수상. 2017. 신문기사에 나타난 경주지진 사건의 사회적 이슈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53-72.
- 이재운, 김수정. 2016. 국내 재난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계량정보학적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3(3): 103-124
- 이혜준, 이동일, 이주현. 2010.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프랜차이즈 교육 프로그램개발. 『경영교육 연구』, 14(2): 105-128.
- 정덕호, 이준기, 김선은, 박경진. 2013.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교육과정 목표와 교과서 학습 목표와의 일치성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지구과학을 중심으로. 『한국지구과학학회』, 34(7): 711-726.
- 최두원, 이균형, 김건, 윤승욱. 2019.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SNS 이용자 인식변화 분석: 탄핵 전후 기간의 트위터와 뉴스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167-194.
- 한승희. 2018.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분야 보도 특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5(3): 41-75.
- 홍주현, 윤해진. 2014.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연설문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24-44.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215-239.
- KISTI. 2016. "KnowledgeMatrix plus ver.0.80 for supporting scientometric network analysis." Daejeon: Department of Scientometric Research,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Seon Gi. 1997. "Types of Gossipped News and Its Deep Structure in the Korean Newspapers' Coverage of the 15th General Elec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1: 41-107.
- Choi, Doo-Won, Kyun-Hyung Lee, Geon Kim, and Kimung-Uk Kim. 2019. "Analysis of Changes in SNS Users' Perceptions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Records: Focusing on Twitter and News Frame Analysis before and after Impeach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167-194.

- Chung, Duk ho, Jun-Ki Kim, Seon Eun Kim, and Kyeong Jin Park. 2013. "An Analysis on Congruency between Educational Objectives of Curriculum and Learning Objectives of Textbook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 Focus on Earth Science I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34(7): 711-726.
- Han, Seunghee. 2018. "An Analysis of News Report Characteristics o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for the Press in Korea: Based on 1999~2018 News Big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41-75.
- Hong, Ju-Hyun and Hae-Jin Yun. 2014. "Presidential Candidate's Speech based on Network Analysis: Mainly on the Visibility of the Words and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Word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9): 24-44.
- Kim, Kyung-Hee and Ghee-Young Noh. 2011. "A Comparative Study of News Reporting about North Korea on Newspap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1): 361-387.
- Kim, Manjae and Bang-Ook Jun. 2012.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Three Major Human Embryo Cloning Case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13(2): 19-34.
- Kim, Soo Yeon, Dae Wook Kim, and Myung Il Choi. 2013.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Studies in Korea - Using Key words in Advertising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Th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and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5(1): 59-85.
- Kim, You-seung. 2013. "A Study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2): 7-30.
- Kwon, Hocheon. 2017. "A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Newspaper Reporting on the THAAD - Based on the Chosun Ilbo and Hankyoreh Reporting."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4(2): 114-154.
- Lee, Hye Jun, Dong Il Lee, and Ju Hyun Lee. 2010. "Development of Franchise Education Program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Korea Business Review*, 14(2): 105-128.
- Lee, Jae Yun and Soojung Kim. 2016. "A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Disaste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103-124.
- Lee, Sang-Min. 2008.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281-315.
- Lee, Soo-Sang. 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 Lee, Soo-Sang. 2017. "Analysis of Social Issues of the Newspaper Articles on Gyeongju Earthquak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53-72.
- Park, JunHyeong, Ho-Suon Yoo, Tae-Young Kim, Hui Jeong Han, and Hyo-Jung Oh. 2017. "A Study on the Core Values of President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Presidential Speech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7(2): 57-78.
- Park, Sung Tae. 2011. "A Study on the Press's Attitude to Social Conflict Public Issues."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5(3): 97-118.
- Park, Sung-Hee. 2009.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Presidential Debates in 2007 Elec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220-254.